

農家所得構造의 問題點과 改編方向

柳 炳 瑞

- ▷ 目 次 ◁
- I. 經濟發展과 農家所得構造問題
 - II. 우리나라 農家所得의 構成現況
 - III. 外國의 農家所得現況
 - IV. 農家所得構造改編의 必要性
 - V. 農家所得構造의 改編方向
 - VI. 要約 및 結論

I. 經濟發展과 農家所得構造 問題

우리나라 國民經濟는 經濟開發의 計劃化가 本格的으로 推進된 1962年 以後 1981년까지 20年間 年平均 8.3%의 實質成長을 했다. 이러한 高度成長은 自立經濟의 目標을 工業化에 是開發戰略에 따라 製造業을 中心으로 한 2次 産業部門의 擴大에 의한 것이다.

1960年代 初부터 시작된 工業化主導의 開發

戰略은 投資財源을 確保하기 위해 國內에서 利用 가능한 資源을 總動員했으며 不足分은 果敢한 外資導入으로 充當했고 이와 같은 工業化는 輸出第一主義와 關聯되었기 때문에 資本의 構成, 原料의 調達, 그리고 技術 및 市場構造 面에서 國民經濟의 對外依存度를 계속 深化시켰다.

工業化에 主導된 經濟開發政策에 따라 2,3次 産業部門은 先進國型體制導入이 容易했고 그리하여 先進産業社會構造로의 一面을 갖출 수 있는 與件이 되었다.

高度成長過程에서 農業部門도 많은 成長을 해 1962~81年間 年平均 3.3%의 成長을 했다. 2,3次産業에 비해 農業部門에는 外國體制導入이 自然 및 기타 與件으로 보아 쉽게 이루어 지지 않았고 他部門에 비해 相對적으로 開發速度가 늦어지고 있다.

經濟의 高度成長은 農業을 둘러싼 諸與件을 量的으로나 質적으로 變化를 가져오게 했으나 農業部門은 그 構造自體의 特殊性으로 인해 經濟의 高度化에 副應하지 못하여 經濟의 均衡

筆者：成均館大學校 農業經濟學科 副教授(本原稿 執筆當時 韓國開發研究院 副研究委員)

開發과 그 發展速度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農業從事者들의 大部分은 農業을 하나의 產業으로 보다는 生業으로 보고 自給農業을 하고 있다. 經濟的 效率性에 입각한 農業보다는 先祖들로부터 물려받은 小農形態가 一般의이다. 經濟가 開發되면서 生存위주의 農業이 交換經濟에 접하게 되어 農業生産物中 一部는 自家消費에, 一部는 2,3次產品의 購入을 위해 交換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2,3次產業部門의 急進的인 開發은 農·工間 또는 都·農間 所得隔差를 深化시켜 社會的 衡平의 問題가 야기케 되었다.

農業의 開發을 지연시키고 있는 主要한 要素中的 하나는 農業開發政策 그 自體이다. 이는 좁은 耕地面積과 過多한 農業人口을 가지고 있으면서 農業勞動力을 포함한 農業資源이 보다 生産的인 部門으로 移動될 수 없도록 묶어 놓는 政策이다.

1981年 農家戶當 平均耕地規模는 1.08ha에 머물렀다. 1ha程度의 規模를 가지고는 農業活動에 의한 農業所得으로는 農家の 家計費조차 充當할 수 없게 될뿐만 아니라 他部門 從事者들의 所得水準과 비교할 수도 없다.

農業政策의 變化나 制度改善은 그리쉽게 이루어 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現存規模를 基礎로한 農家所得增大問題를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農業所得은 農業生産性, 農産物價格 및 農業經營費등의 要因에 의해서 決定되는데 이들 모두 劃期的으로 變化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자니 農業外 所得을 增大시킬 수 밖에 별 대책이 없게 된 것이다.

現小農下에서는 農業所得增大는 물론 農外所得을 增大시키는 複合所得形態構造를 취하게끔하고 農業所得比重보다는 農外所得比重이

커지도록 構造的 變化를 가져오게끔 政策的配慮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制度改善에 따라 耕地規模가 커지고 農業이 營利目的의 近代的產業으로 育成이 되면 農業所得增大政策을 實施하여 專業農形態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經濟發展에 副應한 農業構造調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農家所得構造改編問題가 惹起되고 있는 것이다.

II. 우리나라 農家所得의 構成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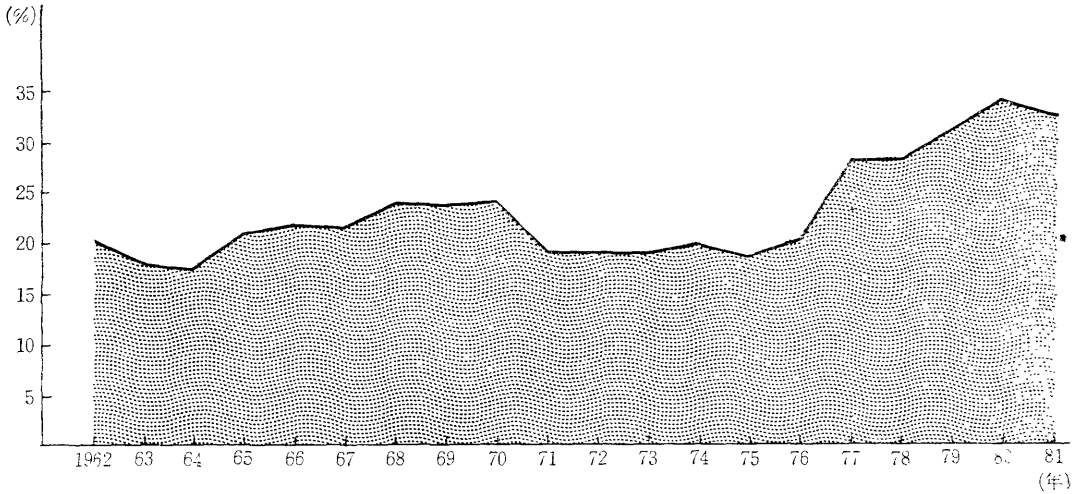
1. 農家所得構造의 推移

우리나라의 農家所得은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農業所得은 農作物收入과 養蠶, 養畜, 農産物加工등으로부터 얻은 所得을 합한 것이고 農外所得은 兼業所得과 勞賃收入 및 其他收入(財産, 被贈收入)으로 區分되고 있다.

農家所得中에 農業所得이 차지하는 相對的 比重은 1960年代 前半期中에는 계속 增加하고 있었으나 後半期에 들어 減少하는 추세에 있으며 70年代 初盤부터 다시 커지는 경향에 있다. 70年代 後盤에는 점차 減少하는 경향에 있다.

農外所得中 兼業所得과 財産, 被贈收入은 1960年代 後半期에 相對的으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勞賃收入의 경우는 一定한 趨勢가 없이 變動되고 있다. 就業機會가 많이 주어진 年度에는 勞賃收入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커지는 反面 就業機會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

〔圖 1〕 農家所得中 農外所得比重



지 못하다.

耕地規模別로는 小農일수록 農業所得의 比重은 적고 대신 農外所得인 兼業所得, 勞賃收入 및 財産, 被贈收入의 比重이 크며 大農일수록 農業所得의 比重은 크고 農外所得比重이 작아진다. 1981年の 경우 0.5ha未滿의 農家에서는 農業所得이 全體所得의 36.0%에 더무르고 있는데 農外所得은 64.0%로 나타나 있고 0.5~1.0ha 農家は 農業所得이 63.4%, 農外所得이 36.6%를 점하고 있었고 1.0~1.5ha의 農家は 農業所得이 73.9%, 農外所得이

26.1%, 1.5~2.0ha農家は 農業所得이 79.1%, 農外所得이 20.9%이고 2.0ha以上 農家は 農業所得이 82.2%, 農外所得이 17.8%로서 農外所得比重이 減少하고 있다. 耕地規模가 작을수록 農業以外的 活動에서 所得源을 찾으려는 傾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農外所得構成內容을 살펴보면 1981年の 경우 兼業所得 2.9%, 勞賃收入 10.0%, 財産被贈收入이 19.9%로서 兼業所得의 比重이 相對적으로 적고 勞賃 및 財産被贈收入의 比重이 많은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表 1〉 耕地規模別 農家所得의 構成比(1981)

(단위: %)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 外 所 得			
			合 計	兼業所得	勞賃收入	財産被贈
平 均	100.0	67.2	32.8	2.9	10.0	19.9
0.5ha 미만	100.0	36.0	64.0	8.8	23.8	31.4
0.5 ~ 1.0	100.0	63.4	36.6	2.8	11.3	22.5
1.0 ~ 1.5	100.0	73.9	26.1	1.1	7.4	17.6
1.5 ~ 2.0	100.0	79.1	20.9	1.1	4.7	15.1
2.0ha 以上	100.0	67.2	17.8	1.5	3.8	12.5

資料: 農水省,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82.

耕地規模別로 살펴보면 小農은 兼業所得 8.8%, 勞賃收入 23.8%, 財産被贈收入이 31.4%로 되어 있고 2.0ha以上の 大農에 있어서는 兼業所得 1.5%, 勞賃收入 3.8%, 財産被贈收入 12.5%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勞賃收入 比重이 크게 나타나 있다. 勞賃收入이 農外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커진 것은 農村에 있어서 就業機會가 擴大되어 給料 등을 받는 俸給者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農家所得의 構成內容

가. 農業所得

農業所得은 農作物收入, 畜産收入, 養蠶 및 其他收入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農業所得은 農業經營構造나 農産物價格變化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農業收入을 構成하고 있는 農作物收入은 穀物類收入과 經濟作物收入으로 區分할 수 있다. 穀物類는 주로 米穀과 大麥 등으로 되어 있으며, 1965年度의 穀物類收入은 農業所得의 約 78%를 점하고 있었으나 經濟作物 및 畜産部門의 所得이 相對적으로 增大됨으로써 1981年度에는 그 比重은 더욱 減

少해서 60.1%에 머물게 되었다. 經濟作物收入은 1960年代 後半부터 시작되는 農家所得 增大特別事業의 實施로 인해 經濟作物生産에 注力한 結果로 農業所得中 構成비가 1965年の 8.8%에서 1970년에는 12.5%로 增大되었고 1981年度에는 21.5%로 擴大되었다.

畜産收入은 1970年代 後半에 들어와 比重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1960年代 後半부터 시작한 農特事業實施와 經濟全體의 開發로 인한 1人當 所得增大로 畜産物需要가 擴大됨으로 인해 畜産物部門의 開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畜産部門의 比重은 1965年 約 3%에서 1981年度에는 16.2%로 增大되었다. 蠶

〈表 2〉 農業收入面에서 本 類別 農業經營構造의 變化推移 (단위: %)

	農業收入	穀物類	經濟作物	畜産	養蠶	其他
1965	100.0	78.1	8.8	2.7	0.3	10.1
1970	100.0	73.3	12.5	3.2	1.1	9.9
1975	100.0	71.5	13.2	3.3	2.2	9.8
1978	100.0	62.5	21.2	14.4	1.3	0.6
1979	100.0	68.2	20.8	7.6	1.3	2.1
1980	100.0	58.9	25.7	12.1	1.2	2.1
1981	100.0	60.1	21.5	16.2	0.7	1.5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6, 1971, 1976~82.

〈表 3〉 農作物 作况構造

(단위: %)

	合計	米穀	麥類	雜穀	豆類	薯類	菜蔬	特作物	果實	其他物	副産物
1965	100.0	62.2	16.0	1.6	3.9	4.0	5.1	4.2	0.6	0.4	1.9
1970	100.0	63.1	11.9	1.0	4.4	2.9	9.2	3.4	1.7	0.2	2.2
1975	100.0	62.7	11.5	0.7	3.0	4.1	8.5	4.5	2.1	0.8	2.1
1976	100.0	64.7	9.7	0.5	3.2	3.2	9.8	4.0	3.1	0.1	1.7
1977	100.0	68.8	3.3	0.4	2.3	2.1	11.0	5.4	4.4	0.4	1.9
1978	100.0	61.4	7.5	0.5	2.8	2.4	13.3	5.7	4.9	0.5	1.0
1979	100.0	62.8	7.9	0.5	2.0	2.1	13.0	4.9	5.0	4.0	1.4
1980	100.0	56.5	5.9	0.8	2.9	2.4	18.7	5.0	5.9	0.5	1.4
1981	100.0	62.7	5.1	0.6	2.4	1.8	15.4	4.9	5.7	0.3	1.2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6~82.

業은 經濟作物 및 畜産部門에 比較해 볼 때 그 리 展望이 밝지 못한 部門으로서 1960年代 後半부터 시작되는 農特事業實施로 많은 開發을 해 1970年代 初에는 農業所得中 그 比重이 增大되고 있으나 1970年代 後半부터는 中共 등의 國際市場參與로 輸出需要의 減少로 인해 사양길에 들어서서 그 相對的 比重이 減少되어 1981年度는 0.7%에 머물게 되었다.

農作物收入을 作物別로 살펴보면 米穀收入은 自給을 위한 生産增大와 二重價格制 등으로 農作物收入中 그 比重이 60%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1965年度에는 農作物收入中 米穀의 比重이 約 62%線에 머물러 있었으나 生産增大와 高米價政策등으로 1970年代 初에는 約 67%로 上昇되었고 이와 같은 水準이 1970年代 後半까지 계속되었으나 1981年度의 比重은 62.7%로 下落하였다.

大麥은 二重價格制등으로 相對的 比重이 계속 60年代 後半과 70年代 初盤까지는 10% 以上이었으나 197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1人當 所得增大로 인한 食生活高度化로 보리쌀 消費減少등에 연유한 生産減少등으로 1981年度에는 5.1%에 머물렀다. 雜穀과 豆類는 1960年代와

1970年代를 통해 그 比重에는 별 變化가 없었다. 經濟作物中 菜蔬收入比重은 1人當 國民所得增大와 거의 같은 추세로 上昇하여 1965年 5.1%, 1970年 9.2%, 1981년에는 15.4%로 增加되고 있다.

나. 農外所得

農外所得은 兼業所得, 勞賃所得 및 財産被贈收入으로 構成된다. 農家所得에 대한 兼業所得比率은 1970年代 後半에 들어 2~3%에 불과하며 勞賃收入은 9~14%, 財産, 被贈收入은 6~15%를 점하고 있다.

1) 兼業所得

農外所得에 대한 兼業所得比率은 197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 2~3%로 아주 安定的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農家所得이 增加하는 정도의 成長率은 兼業所得도 增加하고 있다. 이 중 農業에 따른 서비스業으로 發生되는 收入은 현저하게 增加되고 있으며 商工鑛業으로부터 오는 收入 또한 急激히 增加되고 있으나 林産物 및 水産物의 收入比重은 현저하게 줄고 있다. 특히 70年代 後半期에 들어서서 林産物 및 水産物 收入比重은 줄고 農業에

〈表 4〉 兼業所得의 構成

(단위: %)

	合 計	農業에 따른 서비스業	林産物	商工鑛業	水産物	一般 서비스業	其他
1 9 6 5	100.0	3.2	19.7	28.2	31.3	14.7	2.9
1 9 7 0	100.0	10.7	5.7	46.9	18.0	15.4	4.6
1 9 7 5	100.0	8.9	7.5	54.0	9.6	15.4	0.3
1 9 7 6	100.0	8.9	5.7	53.4	9.7	15.4	7.7
1 9 7 7	100.0	11.6	4.5	58.8	4.3	11.6	9.2
1 9 7 8	100.0	10.3	3.5	68.6	3.1	9.4	5.1
1 9 7 9	100.0	13.0	4.7	63.3	4.4	10.9	3.7
1 9 8 0	100.0	11.2	6.8	60.1	3.2	10.1	8.6
1 9 8 1	100.0	12.0	6.2	57.5	2.2	7.3	14.8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66, 1971~82.

따른 서비스業 收入과 商工鑛業으로부터 發生하는 收入比重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은 農業의 機械化에 따른 서비스業 發展과 政府의 副業團地造成事業등으로 農閑期副業이 育成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勞賃 收入

勞賃收入은 農外所得中에서 가장 현저하게 增加하고 있는 部門으로서 農家所得中에서 9~14%를 차지하고 있다. 農業의 機械化가 점차 이루어지고 除草劑등의 農藥의 擴大使用으로 農作物生産에 投入되는 勞動時間은 減少되며 이와 같은 剩餘勞動力을 他部門에 投入해서 收入을 發生케 한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農業의 機械化와 農業의 科學化로 營農에 投入되는 必要勞動時間을 短縮시키는 반면 農村地域에 勞動集約的인 工業을 育成시켜 剩餘農村勞動力을 흡수한다면 勞賃收入은 增大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勞賃收入은 農業勞賃, 其他勞賃, 給料 및 기타 謝禮金으로 나누어지는데 60年代 初盤에는 農業勞賃의 比重이 컸으나 점차 農業勞賃의 比重은 줄어들고 給料와 其他勞賃의 比重이 增大되고 있다. 農業勞賃은 自家勞動力投下로는 不足하기 때문에 農村

內部에서는 혹은 都市勞動者들을 營農活動에 고용하고 그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農村內의 所得再分配效果는 가져올 수 있지만 農家全體로 보아서는 農外所得增大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農業勞賃部門을 擴大시켜 農外所得을 增大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農外所得增大에 바람직한 勞賃收入部門은 其他勞賃과 給料形態이다. 이를 위해 農業以外에 農村地域에 非農業活動機會를 擴大하여 非農業就業機會를 擴大시켜야 한다.

3) 財產, 被贈收入

賃貸料, 配當利子, 送金補助, 家事收入 등으로 構成되며 農家所得中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0%內外이다. 送金補助收入이 가장 큰 項目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工業部門의 成長과 都市化로 인해 家口員의 一部가 離村하여 工場이나 家政婦등의 職業에 就業하여 얻은 收入의 送金으로 離村人口의 增加와 勞賃등의 增加에서 온 結果이다.

Ⅲ. 外國의 農家所得現況

1. 臺 灣

臺灣의 農業은 韓國에 비해 自然條件上 比較的 좋은 位置에 있다. 이러한 天惠的인 好條件을 勘案 臺灣政府는 農地改革을 1950年代 初까지 完了하고 經濟開發에 着手했다. 經濟開發은 우선적으로 農業開發부터 시작했다. 農業開發方向은 日本治下때부터 많이 이루어졌던 水利施設開發과 農村下部構造開發에 重

〈表 5〉 勞賃收入의 構成

(단위: %)

	合 計	農 業 勞 賃	其 他 勞 賃	給 料	謝 禮 金
1 9 6 5	100.0	29.5	24.7	34.3	11.5
1 9 7 0	100.0	19.7	28.6	43.7	8.0
1 9 7 5	100.0	19.7	21.8	49.4	9.1
1 9 7 6	100.0	17.4	18.2	56.7	7.7
1 9 7 7	100.0	17.6	18.8	52.8	10.8
1 9 7 8	100.0	16.9	22.6	51.2	9.3
1 9 7 9	100.0	15.3	25.9	52.1	6.8
1 9 8 0	100.0	14.8	23.1	55.9	6.3
1 9 8 1	100.0	15.5	23.3	55.9	5.3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1966, 1971~

點을 두었다. 水利施設開發로 農業生産性を 向上시켰으며 한편으로는 耕地面積의 擴大에 注力하였다.

農家所得構造를 살펴보면 1966年 農業所得 比重이 66.0%, 農外所得比率이 34.0%로 農業 所得이 主宗을 이루었다. 그러나 工業化가 推 進되면서 農家所得構造는 變化되고 있다. 1970 年 農業所得은 農家所得中 48.7%를 占하고 農 外所得比率은 51.3%가 되어 農業外所得比重 이 더 크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趨勢는 계 속되어 1975年 農業所得比重은 더욱 減少되어 46.3%가 되었고 農外所得比重은 53.7%가 되 었다. 1980년에는 더욱 더 현저히 農業所得比 重이 減少하여 26.4%가 되었고 農外所得比重 은 73.6%가 되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農業 所得自體가 減少한 것이 아니라 農外所得이 相 對적으로 더 빨리 增加했기 때문이다. 1966年 戶當 農家所得은 NT \$ 32, 320이었으나 1980年

에는 NT \$ 207, 297로 6.4배가 增加했는데 農 業所得은 1966년에 NT \$ 21, 331에서 1980年 NT \$ 54, 726으로 2.5배가 增加하는 한편 農外 所得은 NT \$ 10, 989에서 NT \$ 152, 571로 무려 13.9배가 增加했다.

農家規模別 所得資料가 可能한 1979年度 臺 灣의 營農規模別 戶當農家所得을 比較해 보면 平均戶當農家所得은 耕地規模와 正의 相關關 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0.5ha未滿農家階層 의 平均戶當 農家所得은 NT \$ 155, 000이었으 며 3.0ha以上の 農業經營規模의 平均戶當農家 所得은 NT \$ 239, 000이었다. 그러나 農外所得 比率은 經營規模와는 逆의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0.5ha未滿階層에서 農外所得比率은 87.2%이며 3.0ha以上 農家階層에서는 44.2% 에 그치고 있다.

農外所得을 細分해서 살펴보면 1966年 農外 所得中 給料 및 其他勞賃部分이 農家所得中

〈表 6〉 臺灣의 農家所得構成

(단위 : NT \$, %)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 外 所 得			
			合 計	兼業所得	給 料 其他勞賃	其 他 事業收入
1 9 6 6	32, 320 (100.0)	21, 331 (66.0)	10, 989 (34.0)	905 (2.8)	6, 496 (20.1)	3, 588 (11.1)
1 9 7 0	35, 439 (100.0)	17, 259 (48.7)	18, 180 (51.3)	957 (2.7)	12, 758 (36.0)	4, 465 (12.6)
1 9 7 5	86, 061 (100.0)	39, 846 (46.3)	46, 215 (53.7)	2, 410 (2.3)	38, 478 (38.9)	10, 327 (12.0)
1 9 7 6	100, 873 (100.0)	41, 761 (41.4)	59, 112 (58.6)	3, 430 (3.4)	40, 753 (40.4)	14, 929 (14.8)
1 9 7 7	105, 944 (100.0)	42, 907 (40.5)	63, 037 (59.5)	3, 390 (3.2)	44, 602 (42.1)	15, 045 (14.2)
1 9 7 8	130, 298 (100.0)	43, 520 (33.4)	86, 778 (66.6)	4, 560 (3.5)	62, 282 (47.8)	19, 936 (10.3)
1 9 7 9	164, 629 (100.0)	44, 944 (27.3)	119, 685 (72.7)	8, 890 (5.4)	86, 924 (52.8)	23, 870 (14.5)
1 9 8 0	207, 297 (100.0)	54, 726 (26.4)	152, 571 (73.6)	12, 852 (6.2)	108, 209 (52.2)	31, 210 (15.2)

註 : ()內 數字는 比率인.

資料 : Council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Development, *Basic Agricultural Statistics*, R.O.C., 1982.

〈表 7〉 臺灣의 農家規模別 農家所得構造(1979)

規 模	農家所得 (NT \$)	農業所得 (%)	農外所得 (%)
0.5ha 以下	154,506	12.8	87.2
0.5 ~ 0.9	160,112	23.0	77.0
1.0 ~ 1.4	178,805	32.5	67.5
1.5 ~ 1.9	189,259	40.6	59.4
2.0 ~ 2.9	210,953	51.2	48.8
3.0ha 以上	238,526	55.8	44.2
平 均	164,629	27.3	72.7

資料: Taiwan Provincial Bureau of Accounting and Statistics, Report on the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1979.

20.1%를 점하고 있어 主所得源이었으며 兼業所得은 2.8%, 其他事業外所得은 11.1%에 그쳤다. 1970년에 들어와 農外所得比率은 51.3%로서 農業所得比率보다 相對的으로 커졌다. 農外所得中 兼業所得比率은 2.7%로 1966年水準과 거의 同一하다. 그러나 給料 및 其他勞賃部門이 急增하여 36.0%가 됨으로써 1966년에 비하여 16.0%포인트가 높아졌다. 1978年

까지 兼業所得比率은 3%水準에서 安定的으로 增大되고 있었고 其他 事業外收入도 12~14%水準에서 安定되었다. 그러나 給料 其他 勞賃所得은 急增해서 47.8%가 되었다. 1980년에 들어서 農外所得比率은 74%로 前年에 비하여 1%포인트정도 增加했으나 給料部門은 별로 變動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는 世界的인 不況에 영향을 받아 2次産業部門의 沈滯가 原因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日 本

日本の 農業도 小農經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專業形態의 農業보다는 兼業形態가 일반이며 一種兼業農보다 二種兼業農比率이 훨씬 높다.

全國平均農家所得構成內譯을 살펴보면 1962

〈表 8〉 日本의 農家所得構成(經常價格 戶當平均)

(단위: 千円, %)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 外 所 得			
			合 計	兼業所得	給料, 其他勞賃	其他事業外收入
1 9 6 2	525.4 (100.0)	269.8 (51.4)	255.6 (48.6)	49.5 (9.4)	187.8 (35.7)	18.3 (3.5)
1 9 6 5	760.8 (100.0)	365.2 (48.0)	395.6 (52.0)	58.0 (7.6)	311.1 (40.9)	26.5 (3.5)
1 9 7 0	1,393.2 (100.0)	508.0 (36.5)	885.2 (63.5)	96.7 (6.9)	736.2 (52.8)	52.3 (3.8)
1 9 7 5	3,414.4 (100.0)	1,146.0 (33.6)	2,268.4 (66.4)	181.0 (5.3)	1,920.6 (56.3)	166.8 (4.8)
1 9 7 6	3,662.0 (100.0)	1,156.6 (31.6)	2,506.4 (68.4)	197.4 (5.4)	2,133.3 (58.3)	175.6 (4.7)
1 9 7 7	3,984.5 (100.0)	1,172.9 (29.4)	2,811.6 (70.6)	220.7 (5.5)	2,399.4 (60.2)	191.5 (4.9)
1 9 7 8	4,221.1 (100.0)	1,196.5 (28.3)	3,024.6 (71.7)	228.1 (5.4)	2,597.3 (61.5)	199.2 (4.8)
1 9 7 9	4,417.7 (100.0)	1,126.7 (25.5)	3,291.0 (74.5)	247.8 (5.6)	2,830.4 (64.1)	212.8 (4.8)
1 9 8 0	4,524.0 (100.0)	905.6 (20.0)	3,618.4 (80.0)	256.3 (5.7)	3,125.1 (69.1)	237.0 (5.2)

註: ()內 숫자는 百分比인.

資料: 日本農林水産省, 『農家經濟調査』, 當該年度.

年 農業所得比重이 51.4%, 農外所得比率이 48.6%였다. 工業化가 促進되면서 農業所得比重에 대해 農外所得比重이 커지기 시작하여 1965년에는 農業所得 48.0% 農外所得 52.0%로 農外所得比重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農外所得比重은 急速히 增大되어 1970年 63.5%, 1975年 66.4%로 되더니 1980年度에는 80.0%로 되어 金額으로는 3,618,400円이 되는 한편 農業所得은 絶對額이 前年에 비하여 減少하여 905,600円으로 農家所得中 20.0%를 점하였다.

耕地規模別로 農家所得現況을 살펴보면 1980年現在 0.5ha未滿의 農家所得은 4,605,400円인데 農業所得은 150,100円으로 農家所得의 3.3%에 불과하고 農外所得은 4,455,300円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다. 0.5~1.0ha의 農家階層은 農業所得이 4,455,300円으로 推計되었는데 이 중 農業所得은 606,100円이며, 農外所得은 3,906,700円으로 農外所得比率이 86.6%가 된다. 1.0~1.5ha의 農家所得은 4,379,700円으로 耕地規模 0.5~1.0ha의 平均 戶當所得과 거의 같으나 農業所得은 1,288,300円으로 急増하는 한편 農外所得은 3,091,400円으로 急激히 下落해서 農外所得比率은 70.6%에 달하고 있다. 1.5~2.0ha의 農家戶當平均所得은 4,380,500円으로 1.0~1.5ha의 農家보

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階層 農家の 平均農業所得은 1,848,400円으로 計測되고 農外所得은 2,532,100円으로 推定되었다. 그리하여 農外所得比率은 57.8%에 달했다. 2.0ha以上の 大農의 農家所得은 4,634,200円, 農業所得은 2,833,500円, 農外所得은 1,800,700円으로 나타나 있고 農外所得比率은 38.9%로 나타나 있다. 耕地規模가 커갈수록 農家所得規模는 커지며 農業所得規模 또한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農外所得規模는 耕地規模가 커질수록 작아지고 있다(表9 参照).

日本에 있어서 農外所得은 1962年度에 이미 農家所得中 48.6%를 점했다. 農外所得中 兼業所得은 9.4%, 給料 및 其他勞賃이 35.7%, 其他事業外收入이 3.5%로 되어 있어 農外所得은 주로 給料 및 其他勞賃으로 構成되어 있다. 工業化가 계속되면서 農村에 農外就業機會는 擴大되어 1963년에 이미 農外所得比率이 農業所得보다 커져 50.6%를 점하게 되었다. 그以後 계속 農外所得比率이 增大되어 왔으나 1967年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增加하여 1970년에 들어와서는 63.5%가 되었다. 이는 就業機會의 擴大로 給料 및 其他勞賃部門이 52.8%로 急擴大된 데 그 原因이 있었다. 兼業所得은 계속 減少하여 1962年 9.4%에서 1970年 6.9%

〈表 9〉 日本의 耕地規模別 農家所得(1980)

(단위 : 千円, %)

規 模	金 額			比 率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農家所得	農業所得	農外所得
平 均	4,524.0	905.6	3,618.4	100.0	20.0	80.0
0.5ha 未滿	4,605.4	150.1	4,455.3	100.0	3.3	96.7
0.5 ~ 1.0	4,512.8	606.1	3,906.7	100.0	13.4	86.6
1.0 ~ 1.5	4,379.7	1,288.3	3,091.4	100.0	29.4	70.6
1.5 ~ 2.0	4,380.5	1,848.4	2,532.1	100.0	42.2	57.8
2.0 ~	4,634.2	2,833.5	1,800.7	100.0	61.1	38.9

資料 : 日本農林省, 『農林水産統計』, 1982.

로 되었고 其他事業外收入은 3.8%로 1960年代를 통해 거의 安定되어 있었다. 1977년에 들어와 農外所得比率은 70.6%가 되었으며 給料 및 其他事業以外部分이 60.2%로 增加되었다. 1980년에 들어와 農外所得部門이 80.0%로 擴大된 것은 勞賃所得比率이 69.1%로 急速히 擴大된 것이 主要因이 되고 있다.

Ⅳ. 農家所得構造改編의 必要性

1. 農業經營規模의 零細性

1981年 戶當平均 耕地面積은 1.08ha였다. 이와 같은 耕地面積으로는 農業을 專業化할 수 없다. 農業所得만으로는 家計費를 充足하지 못하여 부득이 農外所得源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農業을 포기하고 他分野로 轉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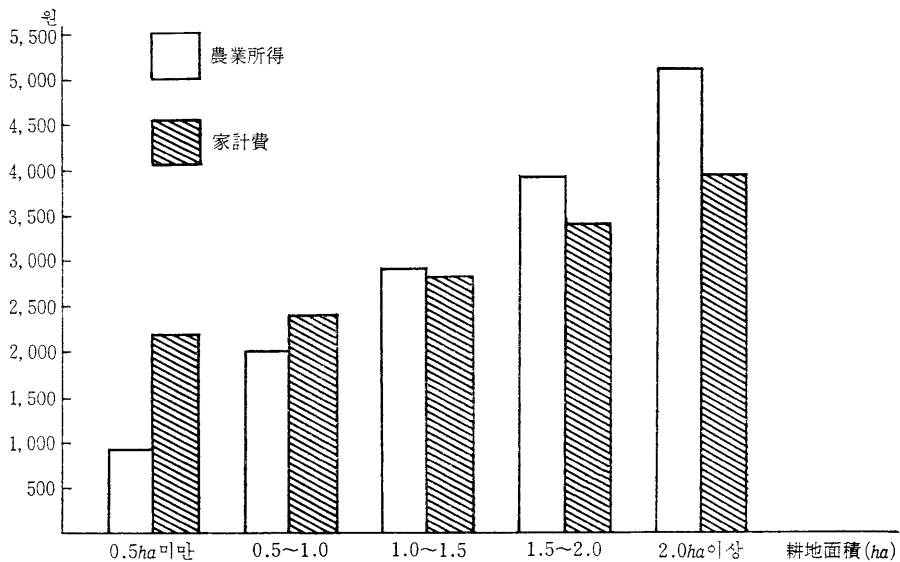
耕地規模別農家分布를 보면 0.5ha未滿의 階層에 속하는 農家戶數가 30.9%로 이들이 所有하고 있는 耕地面積은 總耕地面積 2,188,000ha 중 205,254.7ha로 9.4%에 지나지 않고 0.5~1.0ha規模階層에 속하는 農家戶數는 764,203戶로 全體農家戶數 2,030,000戶의 37.6%가 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耕地는 560,825ha로 25.6%가 된다. 1.0ha以下の 耕地를 所有한 農家戶數는 68.5%가 되며 이들이 所有한 耕地面積은 35.0%가 된다. 만약 1.0~1.5ha規模의 農家を 포함시킨다면 87.9%가 되며 이들이 所有하고 있는 農地는 56.9%가 된다.

農業을 近代의인 産業으로 育成시키려면 營農活動에 의한 收益이 他産業部門에서의 活動

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收益과 比較될만하고 또한 農業所得으로 農家の 家計費를 充足하고 剩餘分으로 農業의 單純再生産은 물론 擴大再生産을 可能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970年度 農家經濟調查資料에 의하면 戶當平均年間 農業所得은 194,037원이었는데 家計費는 207,766원으로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는 93.4%에 불과했다. 農業所得으로만은 家計費를 充足할 수 없어 그 不足되는 分은 農外所得으로 充當해야 한다.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는 耕地規模가 작을수록 더욱 적어진다. 1970年度 0.5ha未滿農家の 農業所得은 82,887원으로 推定되었는데 家計費는 152,729원이 들어 農業所得으로서는 家計費를 54.3%程度밖에 充當할 수 없었다. 耕地規模 0.5~1.0ha의 農家の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度 또한 88.3%로 여전히 農業所得만으로는 家計費를 充足시킬 수 없었다. 耕地規模 1.0~1.5ha의 農家は 農業所得이 家計費總額보다 많아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도가 103.6%로 3.6%程度는 家計費를 充足시키고 남아 貯蓄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나 있다. 1.5~2.0ha規模農家は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도가 119.3%로 높아졌고 2.0ha以上規模의 農家は 112.4%로 나타나 있다. 1981년에 있어서도 0.5~1.0ha規模農家階層에까지 農業所得으로 家計費를 充足시킬 수 없었으며 大規模로 갈수록 農業所得으로 家計費를 充足시킬 수 있는 程度는 增大되고 있다. 그러나 平均値로 보면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는 92.5%에 지나지 않아 現農業與件으로 보아서는 農業以外の 所得源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以上에서 檢討해 본 결과 耕地規模가 작아도 1.0~1.5ha가 되어야만 農業所得으로 家計

〔圖 2〕 耕地規模別 農業所得과 家計費 (1981)



費를 充足시킬 수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으며 그 以下 規模의 農家에서는 必然的으로 農業以外的 所得源을 찾아야만 生計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農業生産性增大의 緩慢

우리나라의 經濟開發은 1960年代 初부터 急進的으로 이루어져 現在는 상당한 水準에 와 있으나 農業部門은 아직도 相對的 後進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主要理由中的 하나는 經濟發展에 副應하는 農業의 構造調整政策의 未備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營農規模와 過多한 農家人口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2,3次産業에 從事하는 사람들과 같은 水準의 所得을 올리거나 保護的인 農業政策을 實施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은 政策은 産業間 資源配分上 誤謬를 가져오겠끔 했으며 現在의 小規模의 非效率的인 農業이 定着토록 誘導해 왔다.

小規模의 營農이기 때문에 農家所得을 增大

시키기 위해서는 農業生産性を 增大시키고 生産物의 價格을 높은 水準에 維持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農業生産性增大는 期待한 만큼 向上되지 못하였다.

農業部門의 GNP는 1950年代에 年平均 2.1%의 成長을 하는 한편 非農業部門은 年平均 4.4%의 成長을 했다. 1960年代 第1次 및 第2次 5個年經濟開發計劃期間의 農業部門의 GNP 成長率은 年平均 3.7%의 成長을 했으나 同期間非農業部門은 11.5%를 成長했다. 1970年代 第3次 및 第4次 5個年經濟開發期間中の 農業部門成長은 年平均 0.9%였으며 非農業部門은 10.5% 成長을 했다.

한편 個別農作物의 增產率을 보면 1970年度에 있어서 食糧作物全體로 보아 0.63%가 每年 減產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중 米穀은 年平均 0.35%의 增產率을 보였으나 麥類는 -2.4%의 成長을 했다. 이와 같이 農産物의 增產이 低調한 것은 農業部門에 대한 投資가 크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지만 農

業과 非農業部門에 대한 均衡開發을 했다는 日本, 台灣등에서도 農業의 成長은 非農業部門에 비해서 相對的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小農體制의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 農業生産增大策에만 依存하는 것은 限界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農產物價格을 높은 水準에 維持시켜야 한다. 그러나 現 우리나라 經濟與件으로 보아 계속적인 農產物價格引上은 一般物價를 上昇시켜 國內物價의 安定을 해치고 國際競爭力을 弱화시켜 輸出을 어렵게 할 可能性이 있다.

3. 農外所得源의 開發未備

1.0ha미만의 小規模農家の 戶當平均 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 農業生産性增大와 農產物價格支持政策을 實施해 왔으나 여러가지 與件으로 보아 農家所得을 增大시키는데 滿足치 못한 結果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農業所得을 계속 增大시키는 동시에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는 兼業農을 育成해야 한다. 兼業農의 農外所得은 構造面에서 農業을 基礎로 하는 兼業所得보다는 非農業就業機會의 擴大를 통한 勞賃收入을 增大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韓國과 農業與件이 비슷한 日本과 台灣에 있어서는 工業開發과 함께 農外所得中 勞賃收入部門이 急速히 開發되었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는 工業開發은 急速度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農村地域의 農外所得比率은 이와 比例해서 增加되지 않고 있다. 日本과 台灣에 있어서 農外所得中 急成長을 한 부분은 非農業部門의 勞賃收入이다. 이와 같이 農村地域에 있어서 勞賃收入을 增大시킬 수 있었던 理由로는 工業

의 地方分散과 道路交通網이 잘 開發되어 通근거리내에 食品加工工場, 섬유工場, 비금속 제품工場 및 木製品工場들이 分散位置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韓國의 경우는 서울, 부산地域등지에 工業이 集中되어 있다. 工業이 大都市에 集中되어 있는 理由로서는 大都市에는 下部構造施設이 잘 되어 있고 銀行 등 金融機關들의 開發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勞動力이 集中되어 있기 때문에 技能工 등 勞動力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큰 製品消費市場에 접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韓國의 工業開發戰略이 內需産業보다는 輸出主導型産業의 育成이었기 때문에 製品을 生産해서 外國에 輸出하기 편한 大都市 부근 高速道路邊 및 港灣등에 工場이 集中位置해 있다. 또한 政府의 行政體系가 극히 中央集權의이기 때문에 重要政策決定이 首都인 서울에서 이루어지므로 自然히 企業이 서울에 인접해 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集中的인 工業化類型이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農村의 就業機會의 擴大를 가져오지 않았다.

工業의 地域的인 集中的 開發 못지않게 商業 및 서비스業의 集中 또한 農外所得增大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農村地域에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수 있는 就業機會造成을 어렵게한 또 다른 理由는 農村地域에 家內手工業開發의 低調이다. 現在實施中인 家內手工業은 農家の 副業으로는 開發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어떠한 理由에서 한 地域에 發生한 家內手工業은 그 地域의 開發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그러나 이들 手工業은 극히 零細하며 農家の 副業形態로 存在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農村地域에 專業的인 家內手工業人으로 活動하고 있다. 農村地域에 存在하는 家內手工業에 대한 農民의 就業機會는 극히 적게 나타나 있다. 家內手工業에 대해 政府가 育成策을 講究한다면 農外就業機會가 擴大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信用制度는 서울을 中心한 首都圈, 釜山, 大邱, 光州, 大田 등의 大都市에서는 잘 開發이 되었으나 中小都市나 農村地域에는 全然 開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地方工業, 商業 및 서비스業이 發達되지 않고 있다. 또한 流通制度 및 社會間接資本形成이 農村地域에 開發이 안되었기 때문에 農外就業機會를 提供할 수 있는 農村工業이 育成되지 못하고 있다.

小農이 大部分인 韓國의 農村에 農外就業機會를 擴大시킴으로써 勞賃收入을 增大케 해서 農外所得을 增大시킬 수만 있다면 農家所得增大로 農村의 후생을 增大시킬 수 있는 반면 農業에 대한 農民의 投資增大로 農業을 開發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V. 農家所得構造 改編方向

1. 從來의 農家所得增大 施策

農業問題 및 農家所得問題는 基本的인 農業構造問題가 解決이 되지 않는 한 결코 풀릴 수 없는 것이다. 基本問題의 理解조차 없이 農業 및 農業所得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政策을 實施했기 때문에 政策效果를 擧揚치 못하고 있는 事例가 많다.

解放後 1950年代를 통해 韓國의 農業開發政策은 1949년에 단행된 農地改革外는 별로 重要的 것이 없었다. 이 期間中 解放 및 6·25事變과 더불어 惹起된 政治的 混亂속에서 經濟安定이 國家의 最優先政策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產業構造上 絶對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農業은 食糧의 安定的 供給의 役割을 擔當하도록 되었다. 이 期間中 物價의 安定은 바로 穀價安定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物價의 安定을 위해서는 穀價上昇이 抑制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國內에서는 農家所得보다는 食穀增産에 힘썼고 不足分은 外國의 農產物 특히 美國의 剩餘農產物을 導入해서 食糧需給을 安定시켰다.

1960年 初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經濟政策에 일대 革新이 가해졌다. 지금까지의 農業爲主의 產業構造가 2,3次産業으로 構造的 變化를 가져 오게한 起點이 되었던 것이다. 1962年에 第1次 經濟開發 5年計劃이 始作되면서 韓國經濟는 擴大政策으로 바뀌었으며 主要開發分野는 工業化였다. 이 期間中 農業開發政策은 여전히 食糧增産施策에 集中되었다. 食糧增産을 위해서 土地基盤造成事業을 實施했는데 그 主要事業은 耕地擴大, 土地改良, 種子更新等に 대한 政府支援이 制度化 되었다. 農漁村經濟의 惡循環을 除去하고 農村金融의 正常化를 위한 措置로 農漁村高利債整理와 農業銀行과 舊農協의 統合에 의한 새로운 綜合農協이 發足되었다. 綜合農協의 創設은 農村에 信用事業과 經濟事業의 效率的인 統合이라는 데 意義가 있으며 이로써 農業의 近代化를 農協運動으로 이룩해 보자는데 뜻이 있었다.

農家所得增大事業으로서는 自立安定農家造成事業으로서 一部農家を 選定, 融資支援하여

畜産 및 開墾 등에 의한 耕地擴大 등을 통한 所得增大을 꾀했으나 全體農家를 對象으로 하지 않은 事業이기 때문에 農民間의 不和와 農村의 輿論이 좋지 못해 中斷되었다.

1960年代 中盤에 들어서 價格 및 所得補償 政策으로서의 試圖가 이루어져 契約栽培와 價格豫示制度가 部分的으로 導入實施되었고 適地適作原則下에 主產地造成事業을 實施하기 始作했다. 主產地造成事業은 곧 農家所得增大 特別事業으로 轉換되었으며 米麥을 除外한 經濟作物 등 成長農産物을 對象으로 하였다.

1967年代부터 始作되는 第2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에 있어서도 農業의 目標은 食糧增産에 의한 國民食生活의 安定이었고 附隨的으로 所得과 利潤을 目標로 하는 農業을 發展시켜 農家所得을 增大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한 制度的 措置로서는 農業에 관한 憲法이라 할 수 있는 「農業基本法」을 日本의 것을 模倣해서 1967년에 制定公布하였으며 農民의 農業資金調達을 容易하게 하기 위해서 「農地擔保法」이 制定되었다. 또한 農産物의 價格安定과 農家經濟의 向上을 目標로 한 「農産物價格安定基金法」과 農業生産에 있어서 災害豫防과 事故後對策을 講究함으로써 生産力增進과 農業經營의 安定을 위한 「農業災害對策法」이 마련되었다. 開墾促進을 위한 「農耕地造成法」이 마련되었고 農林水産物의 貯藏處理 및 加工業을 開發育成함으로써 農漁民의 所得을 增進시키기 위해서 「農漁村開發公社」를 設立했다.

農家所得增大政策으로서 가장 重要한 것은 1960年代 末부터 始作된 高米價政策으로의 轉換과 二重麥價制實施이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農家所得增大特別事業이 계속 추진되었고 1972年을 起點으로 시

작된 農村새마을運動은 農村의 生活環境을 根本的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農村社會에 自助, 協同, 勤勉을 點火시켜 農民들에게 活氣와 自信感을 불어 넣게 했다고 評價되고 있다.

우리나라 農業政策은 收益性이나 效率性 등 經濟的原理에 立脚하는 것보다는 價値的面에 置重한 農産物의 增産施策一邊道였기 때문에 農家所得增大을 위한 農業所得增大施策이나 農外所得增大施策은 1960年代 前半까지만 해도 本格的으로 實施되지 않았다. 1960年代 後半부터 農家所得問題에 關心이 기울어지자 政府에서는 高米價政策 農家所得增大特別事業, 農閑期勞賃散布事業, 農閑期副業事業施策을 推進했다. 이 모든 施策들은 現在의 1.0ha規模의 農業을 계속 維持하기 위한 것이었다. 작은 規模에서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單位面積當 生産量을 增大시켜야 하며 農産物價格을 높은 水準에 維持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小規模營農에 의한 農業所得增大은 農業生産增大의 緩慢과 經濟安定化施策 및 其他經濟條件에 의한 高農産物價格政策의 계속推進의 어려움 등에 의하여 스스로의 限界에 부딪치고 있다. 그리하여 農閑期勞賃散布事業과 副業園地造成事業을 實施하게 되었고 1970年代初 全般的으로 展開되고 있었던 새마을運動을 農家所得增大의 直結시킴으로써 새마을運動의 求心事業으로서 農家工産品開發事業을 着手하여 「새마을工場」을 建設하였다. 「새마을工場」事業은 農民들이 農業生産에 그치지 않고 工産品の 生産에도 參與하도록하여 農家の 農外所得을 增大시키는 同時에 工産品の 生産 및 輸出과 雇傭의 增大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施策遂行으로 인한 農家所得增大效果는 그리 크게 나타나 있지 않다.

2. 農家所得構造改編의 代案

가. 小農體制農業代案

農家所得構造의 改編方向은 農業構造의 目標設定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農業構造의 長期目標가 무엇인가를 設定한 다음 이 目標達成에 알맞는 農家所得構造政策을 實施해야 한다.

韓國의 農業은 지금까지 先祖들로부터 물려 받은 世襲的인 小農이며 農業에 대한 自身の 資質有無와 關係없이 宿命的으로 하는 自給自足型에 가까운 農業이었다. 工業化나 經濟開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變化를 싫어하는 保守的인 形態의 現小農體制가 그런대로 우리나라에 適合한 形態의 農業이었다. 農村의 價値觀의 變化 및 現農業從事者의 全面的인 世代交替가 당분간 일어나지 않는다고 假定하고 기타 여러가지 經濟與件으로 보아 現在의 農業構造形態를 그대로 存續시키면서 2,3次產業에 從事하는 사람들과 같은 水準의 所得을 維持토록 하려면 農業所得은 물론 農業外所得을 增大시켜야 한다.

農業所得과 農外所得增大는 短期的으로 일시에 急進的으로 이룩될 수는 없고 長期的으로 서서히 增大시켜야 效果가 크게 나타난다.

이미 언급했듯이 農家所得問題는 農業의 構造的인 問題의 解決없이는 결코 解決될 수 없다. 農民들이 얻는 所得은 2,3次產業에 從事하는 賃金勞動者들의 所得이나 企業家들이 얻는 所得과는 큰 차이가 있다. 農家所得은 農業所得과 農外所得으로 構成되는 混合所得이다. 더우기 우리나라 農業은 小農의 自給自

足形態에 가깝기 때문에 自己土地, 自己資本 및 自家勞動力을 基礎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農家所得은 自己土地에 대한 地代, 自己資本에 대한 利子 및 自家勞動에 대한 勞賃收入의 混合體가 되고 있다.

1981年 戶當平均耕地面積은 1.08ha이며 이 중 畝은 0.64ha, 田이 0.43ha이다. 적은 規模의 自給自足에 가까운 農業을 하다보니 自己消費에 필요한 主穀인 쌀 및 麥類를 生産하고 豆類, 薯類, 菜蔬 및 特用作物을 生産해서 自家消費를 하고 剩餘分은 都市에 販賣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畜産으로서는 韓牛 1~2마리, 돼지 1~2마리, 닭 몇마리를 기르는 것이 전형적인 標準農家이다. 自然災害나 價格變化등 經濟與件變化에 따른 危險分散을 目的한 復合營農이라기 보다 自家消費充當을 위한 復合營農을 옛부터 實施해 왔다.

經濟가 開發되면서 農民들도 市場經濟에 접하게 되고 所得增大問題가 惹起된다.

農家所得中 農業所得이 主宗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農家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農業所得을 增大시켜야 한다. 農業所得은 生産된 農產物에 價格을 乘한 것으로부터 經營費를 除外한 것이다. 그리해서 農家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最小限 3가지 要因을 考慮할 수 있다. 첫째 農業生産性의 增大이다. 여타 여건이 주어졌다고 볼 때 農業生産性向上은 그만큼 農業所得을 增加시키고 있다. 쌀의 경우 1962年 10a當 265kg이 生産되었고 植付面積은 1,139千ha에 달했다. 19年後인 1981년에는 비록 期間中 다소 起伏는 있었지만 10a當 生産量이 414kg에 달해 56.2%의 增産을 가져왔고 植付面積도 1,224千ha로 增加해서 總生産量은 增加하였다. 그러나 單位面積當生産量은 氣候條

件이나 營農技術水準에 의존하는 바 커서 增産效果는 緩慢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考慮해야 할 要因은 農産物價格水準이다. 生産性의 向上없이도 價格이 上昇하면 農業所得은 增加하게 된다. 政府는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해서 1960年代 後半부터 1970年代를 통하여 高農産物價格政策을 實施해 왔다. 農産物中 米麥이 가장 重要한 作物이기 때문에 米麥價格의 上昇은 곧 農業所得의 增大로 나타나게 된다. 1970年代中 米穀에 대한 政府收買價는 年平均 21.6%라는 높은 率로 上昇되었으며 大麥에 대한 政府收買價는 每年 20.1%로 上昇되었다. 同期間中 都賣物價는 每年 18.4%로 上昇한데 비하면 높은 上昇率이었다. 그러나 높은 農産物價格上昇은 一般物價水準을 引上시켜 다시 實質農家所得을 減少시킬 우려가 있으며 經濟安定施策效果를 擧揚시킬 수 없게 한다.

세째로 農業所得에 영향을 주는 要因은 農業經營費 혹은 農業生産費다. 지금까지 農業生産增大施策과 農産物價格政策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形態로 試圖되어 왔으나 農業生産費 節減問題에 대해서는 關心을 두지 않았다. 費用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土地生産性を 增大시키는 데 급급했으며 비싼 費用으로 生産을 했으니 農産物價格을 높게 維持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國內農産物價格이 國際農産物價格에 비해서 2~7倍程度가 비싸게 된 것이다. 이렇게 비싼 費用을 들여 增産을 強要하나 과연 주어진 農業資源을 가지고 自給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農業純收入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農業總收益을 增加시켜야하나 그보다도 農業生産費를 節減시키는 것이 效果의 일 수가 있다.

生産費를 節減시키는 일은 長期를 要할뿐만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營農技術開發이나 土地制度改善 등에 의하여 生産費는 引下될 수 있다.

農業生産性增大, 農産物價格政策 및 生産費 引下措置로 農業所得을 增大시킬 수는 있지만 2,3次産業의 開發速度는 더 急進의으로 이루어져 農業從事者와 非農業從事者와의 所得隔差는 더욱 擴大될 것이 豫想된다. 그러므로 農業外所得을 增大시켜야 한다. 오늘날 日本이나 臺灣의 경우가 그 代表的인 例가 된다. 農業所得 및 農外所得額의 絶對額을 增大시키며 더우기 農外所得比重을 急速度로 增加시키는 것이다.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施策과 增産施策에 의한 政府의 努力으로 農民들은 사명감을 갖고 결코 農業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계속 農業을 하며 農外事業에 就業할 것이다. 그리하여 專業農家와 第1種兼業農家は 減少하고 第2種兼業農家は 계속 增加할 것이다. 第2種兼業農家は 農外所得만으로 家計費를 充足하고 剩餘分을 남길 수 있게 된다. 工業化와 人口 增加로 인해 土地需要는 增大되고 農地價格은 계속 上昇하기 때문에 農地를 계속 所有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小農體制는 영구히 持續될 것이며 農業에 대한 勞動力投入減少로 農業生産性は 減少될 것이며 小規模耕地에 過多한 農業機械投入등으로 農業生産費는 增大되어 農産物價格을 높은 水準에 維持토록 하는 政治的 壓力이 強力히 나타나고 비교적 손쉬운 米作農단을 하고 勞動力이 많이 要求되는 田作農業은 회피하는 自給自足農業으로 轉落할 可能性이 있어 農外所得 增大事業의 逆效果도 있다.

나. 專業自立農代案

工業化나 經濟開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小農의 現體制가 그런대로 적당한 形態였으나 現在 및 앞으로의 經濟與件으로 보아서는 現在의 韓國의 農業形態를 계속 維持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農業은 生存을 위한 自給自足形態의 段階를 벗어나 交換經濟의 一部分으로의 農業으로 轉換되어 가고 있다.

전적으로 商品生産의 農業은 아니지만 市場經濟原理에 밀접히 접근되어 있는 農業이다. 어느나라의 農業이든 막론하고 農業이나 農業政策은 保守的이어서 變化를 急進的으로 하지는 않지만 서서히나마 탈바꿈을 하고 있다.

現在 政府에서 推進하고 있는 農家所得構造改編政策은 小農體制的 農家所得增大를 위한 施策으로 適切한 措置이지만 얼마간의 制度的改善을 걸들이면 專業自立農으로 轉換을 가져올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現政府는 農家所得構造改編措置는 農家所得構造를 農業所得爲主에서 農外所得比重을 增大시켜 農家所得이 增加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措置는 農業의 構造를 改善하는데 效果의 일 수가 있다. 즉, 小農의 混合所得體制的 農業에서 自立專業 農家所得中心의 營利를 위한 農業으로 移轉시키는 過度的措置로서 農外所得增大施策은 必要한 것이다.

農外所得增大를 위해 이미 農漁家副業團地造成事業 및 새마을工場事業을 實施했지만 經濟的與件을 考慮하지 않은 劃一的인 事業推進으로 大部分 成功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중 成功的인 것도 있기 때문에 成功的인 事業은 持續的으로 育成하고 特別 現在 比較的推進이 잘 되고 있는 民藝品工場事業은 擴大育成할 充分

한 必要性이 認定되고 있다. 農外所得은 農外 就業所得 즉, 勞賃所得을 爲主로 해서 增大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니 農村地域에 就業機會를 擴大시킬 수 있는 農村工業을 育成시켜야 한다.

農村의 就業機會를 擴大하기 위해서는 農村工業化를 推進해야 한다. 農村工業化를 위해서는 地方中心都市와 農村地域에 位置한 既存製造業을 계속 育成하고 이들 既存工業들이 與件이 좋은 大都市로 移住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한 租稅, 金融의 支援을 強化하고, 새로운 農村工業의 元 활한 育成을 위해서는 새마을工場事業과 같이 散發的으로 工場을 立地케 하지 말고 小規模의 農村工業開發促進地區(農工地區)를 指定하여 造成하고 農工地區內에 入住하는 企業에 대하여 租稅 및 金融을 支援하여 大企業의 分工場 및 外國人投資에 의한 新設製造企業을 農村地域에 적극적으로 誘致해야 한다. 工場을 誘致함에 있어 政府主導의 地域 및 業種選定方法은 止揚하고 政府에서는 農村地域에 製造業體가 導入될 수 있는 與件造成 즉, 道路建設 및 鋪裝 등 社會間接資本形成단을 하고 企業家로 하여금 地域이나 業種選定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農村工業化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農村地域의 中心都市와 그 背後農村地域의 機能을 連繫하여 相互依存할 수 있는 農家就業圈을 設定 開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都市와 農村을 一體로 한 地域開發로 都農間의 隔差를 解消하고 農村內 非農業部門 就業擴大로 轉業 및 脫農등의 離村을 防止하여 都市過密人口集中을 抑制하는 效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農村의 工業化로 農村地域에 就業機會가 擴

大되면 兼業農問題等 農業에 否의 效果를 가져오나 農地所有上限線을 10ha정도로 引上調整하고 農地賃貸借의 制度化로 營農規模를 擴大시킬 수 있도록 하며 農業經營을 機械化하면 規模가 큰 專業自立農이 發生할 것이다. 現在의 多數小農들을 保護하는 것보다는 小數의 大規模專業自立農을 集中的으로 育成하는 것이 農業을 產業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農村의 工業化以後에 나타나는 大規模專業農은 經濟的收益性에 立脚한 企業農의 性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現在와 같은 政府의 지나친 保護는 要求되지 않지만 生産費節減등을 위한 技術開發投資나 農民自身들이 할 수 없는 社會間接資本形成등은 계속 政府가 實施해야 한다.

V. 要約 및 結論

1981年度 農家戶當平均耕地面積은 1.08ha였으며 農業經營活動에 의한 農業所得은 2,476,463원이었다. 同年 農家戶當平均家計費는 2,676,090원으로 推定되어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는 92.5%에 미쳤다. 이와 같은 農業所得에 의한 家計費充足度는 土地를 中心한 營農規模와 밀접한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耕地規模가 0.5ha未滿의 農家に 있어서는 겨우 41.9%, 0.5~1.0ha의 農家は 84.7%에 달하였다. 1.0~1.5ha農家は 105.7%로서 農業所得에 의해 農家の 家計費는 充足이 되었다. 1.0ha未滿農家に 있어서는 農業所得으로는 家計費를 充足못하고 있으며 비록 1.0~1.5ha規模의 農家に 있어서는 農業所得이 2,948,012

원으로 都市勤勞者所得 3,817,224원의 64.9%에 달해 都市의 經濟的與件을 勘案해 보더라도 農業活動에 의한 報酬가 너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零細農뿐만 아니라 中農層에서도 農業所得外 農外活動에 의한 所得源을 찾아 農外所得을 增大시켜 農家所得을 向上시킬 필요가 있다. 1.5~2.0ha農家は 農業所得이 3,890,317원으로 都市勤勞者平均戶當所得과 같은 水準이며 2.0ha以上 農家は 5,101,332원으로 都市勤勞者所得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農家所得構造改編問題는 農業構造問題와 밀접히 聯關되어 있기 때문에 構造的인 問題를 解決하지 않고서는 所得問題를 쉽게 解決할 수 없는 것이다.

營農規模가 커질수록 農業所得比重은 增加하고 農外所得比重은 減少하고 있다. 1981年 農家所得中 農外所得比는 0.5ha 未滿의 零細農에 있어서는 64.0%로 農業所得比重보다 훨씬 컸으며 2.0ha以上 農家に 있어서는 17.8%로 減少하여 大規模로 갈수록 農業所得比重이 커져 專業農의 性格을 갖추게 되고 있다.

韓國의 農業은 지금까지 先祖들로부터 물려 받은 世襲的인 小農形態이며 農業에 대한 自身들의 資質有無와 關係없이 宿命的으로 하는 半自給自足型農業이 一般이다. 最近에 와서 農村에도 經濟的인概念이 조금씩 導入되면서 農民들도 收支打算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지만 政府의 政策을 위시 經濟原理를 떠난 農業이 部分的으로 進行되고 있다. 農業의 役割中の 하나는 食糧生産이다. 國民들에게 安全하게 食糧을 生産供給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그러나 費用이야 어떠하던 간에 增産을 強要하는 것은 農民立場에서 보면 조금 무리한 政策이다. 生産은 農民이 하는 것이기 때

문에 收支가 맞지 않는 農業增産을 强要하는 것은 農民들로 하여금 非經濟的 行爲를 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農業을 過保護하는 것은 農業勞動力을 위시한 農業資源을 生産性이 높은 分野로의 移轉을 막아 農業自體의 開發이나 國家經濟全體를 위해서 合理的인 施策이 못되는 것이다.

小農制度를 中心한 政府의 政策은 결국 우리나라 農家의 營農規模를 1ha에 계속 머물게 했으며 그로 인해 農家所得構造改編問題를 야기시켰다.

大規模下에서의 農業所得增大必要性에 비해 小規模營農에 있어서는 混合所得體制를 維持함으로써 農家所得을 올릴 수 있다. 즉, 農業生産增大와 農産物價格支持등으로 農業所得을 增大시키고 他面 農業外所得源을 開發하여 農外所得을 增大시키도록 해야 한다.

農外所得增大는 여러가지 方法을 통해서 達成될 수 있으나 바람직한 方法은 農村內에 就業機會를 擴大하기 위한 農村工業化이다. 農村工業化는 短期的으로는 金融稅制등의 改善 및 支援으로 農村內既存工場을 大都市번으로 移住해가는 것을 防止해야 하며 長期的으로는 農村地域에 道路建設 및 鋪裝등을 포함한 下部構造建設을 實施 工業이 導入될 與件을 造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方向이다. 또한 農村工業化를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農村地域에 農家就業圈을 設定하고 이를 中心한 中心地方都市에 小規模工業團地를 造成해 工

業을 誘致하는 것이 좋다. 從來 새마을 工場事業은 散發的으로 導入이 되었고 與件이 造成이 안된 地域에 劃一的으로 工場이 導入되었기 때문에 效果가 적었다.

小農制度下의 農家所得增大施策의 하나로 農村工業化施策은 農業構造關係制度改善을 併行 實施한다면 별 마찰없이 小農體制에서 營利를 目的한 規模가 큰 企業農體制部分을 擴大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農村地域에 工業의 導入은 兼業農의 增大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生産性의 下落은 물론 小規模營農體制를 永續시킬 可能性도 있다.

工業化나 經濟開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小農의 現體制가 그런대로 適當한 形態의 農業이었으나 經濟가 開發이 되어 經濟與件이 變化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農業型態는 變形되어져야 한다. 그 方向은 우선 政府主導下의 農業開發政策에서 政府의 介入을 最小限으로 하고 市場原理를 導入한 利潤目的의 産業으로서의 農業으로 育成시켜야 하는 것이다. 利潤追求는 技術革新에 의한 生産費引下에 의하여 可能하며 이와 같은 營利追求農家を 對象으로 專業農으로 育成하여 農業活動에 의한 農業所得만으로 農家の 家計費를 充當하고 單純再生産은 물론 擴大再生産을 可能케하며 他部門從事者들과 所得水準은 물론 投資收益이 均衡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專業企業農比率를 擴大하고 小規模半自給自足型農家比率를 점진적으로 減少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2.
- 農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70~82.
——, 『農產物生產費調查結果報告』, 1981.
——, 『農林統計年報』, 1970~81.
- 農業協同組合中央會, 『農協年鑑』, 1980~81.
- 臺灣省政府農林廳, 『臺灣農家記張報告』, 1979.
- 劉錫昶, 『韓國農業의 未來像: 西紀 2000年代
를 바라보며』, 建大出版部, 1967.
- 日本農林水產省統計情報部, 『農林水產統計』,
1981.
- 竹中一雄外, 『日本農業自立戰略』, 1981.
- 韓國開發研究院, 『主要農業政策改善方案』,
1982.
——, 『農外所得増大를 위한 綜合對策』,
1982.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轉換期의 農政課題와
政策代案』, 1978.
- Council for Agricultural Planning and De-
velopment, 『*Basic Agricultural Statistics*』,
R.O.C. 1982.